



거리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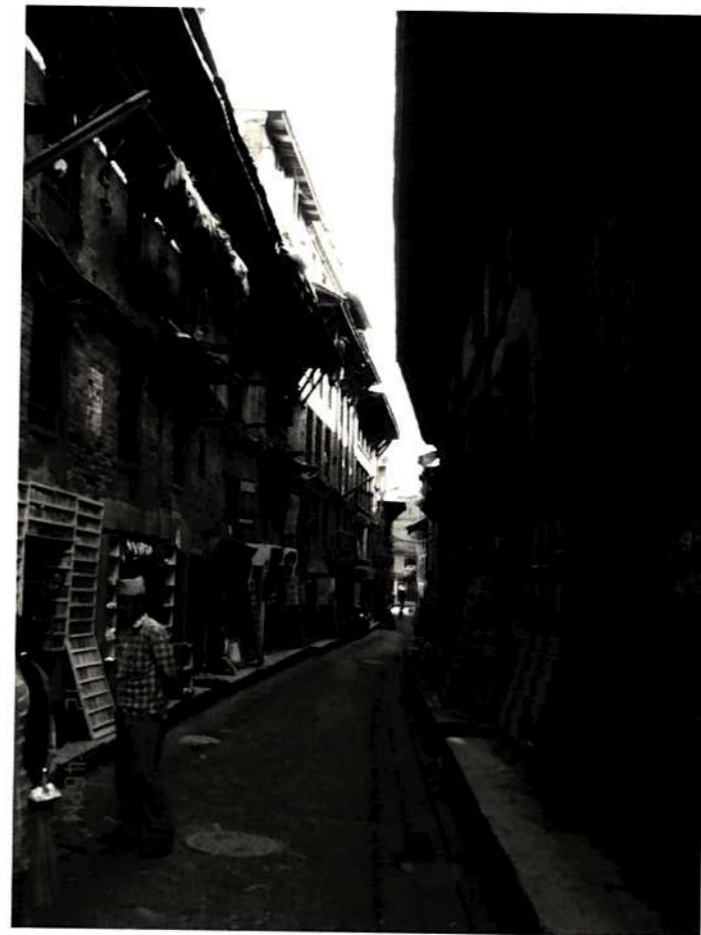
미등록체류 그 끝없는 악몽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때 거액의 송출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고국에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사채를 얻어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빚을 갚고 목표했던 금액을 저축하기에 계약기간은 짧기만 하다.

현재 한국에는 40여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며, 이중 20만명 정도가 비자없이 체류·노동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미등록 체류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또는 강요된 선택으로 미등록 체류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단 비자가 만료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비자없는 노동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경우 고액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 한다. 따라서 비자가 없으면 직장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당연히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등록노동자를 고용하기 힘들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가짜 휘발류 제조업체와 같은 불법사업장에 자신도 모르게 고용되어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미등록노동자들은 항상 출입국 단속반에게 쫓기는 신세이다. 역 주변과 시장, 식당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데 두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잠을 자거나 심지어 사랑을 나눌 때도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달리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부상 당한 몸으로 도망가기 바쁘고, 단속반에 쫓겨 높은 곳에서 추락하기도 한다. 또한 미등록노동자가 자신의 불안한 신분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추행을 일삼는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 곱 번 째 이 야 기

●

람 크리스너 썬 Ram Krishna Pun

45세, 2001년 사망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년 10개월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유가족 : 아내와 아들하나 딸 둘

●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버지는 많이 우셨습니다.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 마음이다 그럴테지만 아버지는 유난하셨습니다. 네팔에서는 흔치 않은 연애결혼을 해서 더욱 섭섭하셨던 걸까요? 제가 결혼한지 얼마안돼서 아버지는 한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연수생 비자입니다. 떠나시는 날 아버지는, 잘 살아라.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한국이란 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농사지으며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넷이나 되는 삼촌네 식구들과 모두 모여 살았습니다. 삼촌들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아버지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이나 되는 자식들 공부는 제대로 시켜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아버지는 그래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나셔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국하신다고 약속한 날짜를 한달 앞두고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공장에서 일했는지 잘 모릅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할까봐 그러셨는지, 잘 있다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 일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좋은 분들과 일하셨던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무척이나 일이 힘든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늘,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내사라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말이라도 더 해 드릴 것을... 아버지께 좀 더 따뜻한 딸이 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도 한이 됩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혹시 남편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어 느날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심하다고, 조금만 더 고생해 달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한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인력송출 회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한국으로 일하러 갈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난 일입니다.



람 크리스너 문의 딸, 손자, 아내

남편도 예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 핸드폰 번호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예전 아버지가 그랬듯이 남편도 잘 있다고 걱정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 대학공부를 끝까지 시키지 못하신 것을 평생 한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마 아버지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어머니를 괴롭히나 봅니다. 어머니 마음은 아랑곳없이 동생은 다른 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매형처럼 한국에 가겠다는 꿈입니다. 아젠 자기가 가장이 되었으니 집안 생계를 책임지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오갈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가장이 아닙니까...



양탄자를 만드는 아이들

악순환하는 이주노동

이주노동자가 충분한 부를 축적하고 출신국에 돌아가 가족과 재결합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다시 이주노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비이주노동자들은 단 한차례 이주노동으로 영원히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이주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모두 소비되고 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족의 일원이 벌어들인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의 것이라는 문화 때문이다. 또한 저축하더라도 그 돈이 적절한 곳에 재투자 되는 경우도 드물다. 돈은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쓰이며, 저축액은 주택건축에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고향에 돌아가서야 자신이 처음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노동자는 또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귀환노동자들이 출신국에 정착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출신국의 높은 실업률과 더딘 경제성장은 귀환노동자의 정착을 가로막는다. 귀환노동자들은 이미 이주노동국에서 출신국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으므로, 어느 직업에든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결국 귀환노동자들은 또 다른 이주노동을 계획하게 된다. 얼마간 저축한 돈을 송출브로커에게 쥐어주고 또 다시 꿈을 꾸며 떠나고야 만다.





여덟 번째 이야기

●

마덱 쿠워 Madhav Kuwar

23세, 1994년 사망

1993년 한국 입국 후 7~8개월 노동

유가족 : 부모님과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심장마비라고 연락받았으나 자세한 내용 알 수 없음.

사망한 지 두달이 지난 후에야 네팔 경찰을 통해 연락 받음.

●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14년이 지나났으니.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이 세상을 어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새 그 녀석 없이 우리는 14년을 살았네요. 참으로 지독하면서도 무심한 것이 세월이라더니

지금도 많은 네팔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지요. 예전에 우리 마담처럼 말이지요. 우리 아들도 그저 다른 젊은이들하고 비슷한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운명은 서로 다른가 봅니다. 14년 전에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으로 노동자를 송출하는 회사같은 게 없었어요. 브로커들이 한국에 갈 사람을 모집하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다 돈을 주고 한국에 갔어요. 우리 마담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다가에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지도 모르고 어디 붙어있는 나라지도 몰랐어요. 인도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는 많이들 갔지만 한국은 잘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나보다도 아내가 더 말렸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때 더 말려서 못 가게 해야 하는 건데... 그때가 1992년, 평생 지을 수 없고 잇을 수 없는 1992년이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던가, 한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 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을 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좀 기다려 보라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도 전화가 왔어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면 식구들 당분간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네팔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지요. 그 때는 한국에 가기도 힘들고 돈을 벌어도 보낼 방법이 없었으니...

꼭 한번 애가 제 사진을 보냈는데, 처음 때보다 많이 여위었네요. 한 10kg은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힘들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저 음식이 잘 안 맞아서 그렇다고,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몰랐겠습니까. 자식을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속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것을...

마담은 돈을 보낼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우리는 마담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한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동네 사람들도 모두 좋아하고 누구나 칭찬하는 좋은 애였어요. 그렇게 착한 녀석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마담이 죽은 지 두 달이나 지나사셨습니다. 마담은 한국으로 간지 5개월만에 죽었고 그 직후에 한국 정부가 네팔 외교부에 편지를 보냈고, 외교부에서 지시받은 경찰이 동사무소를 뒤지다 우리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마담이 불법체류 상태만 아니었다면, 아니 불법체류를 했어도 함께 일하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평소 마담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우리한테 소식을 그렇게 늦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빨래하러 가다 넘어졌는데, 거기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뼈째 말랐던 아들 사진이 자꾸 떠오릅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리 말랐겠습니까. 심장마비라는데... 아마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고 도와 달라고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다. 네팔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달 넘



마담 쿠위의 아버지



마담 쿠위의 어머니



마담 쿠위의 여동생과 통역자

게 차가운 냉동고속에서 슬슬히 누워 있었을 아들이 한없이 불쌍해서 그냥 한국에서 장례를 치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부모도 없이 그렇게 한국에서 장례를 치뤘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을 데려갔던 사람 손에 들러 뺏겨가 왔습니다.

우리 마담이 죽은 다음에 한국에 있는 네팔인들 사이에 모임이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 네팔인들끼리 서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아들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보

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남은 이들에게 큰 선물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담이 살아있다면 지금 마흔 살입니다. 결혼도 했을테고 자식도 여럿 두었겠지요. 몇 년 무사히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애들 크는 거 보면서 잘 살았겠지요. 하지만신이 마담에게 주신 시간은 23년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근심가리를 안고 삽니다.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만큼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담을 말리지 못했던 것처럼 막내 놔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하게도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해 줄 게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네팔의 인형들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망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크게 키우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하거나, 언어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여러 환경 또한 질병과 사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높은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시간, 낮은 음식과 날씨, 돈을 벌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이주노동자를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

정가 람 쿠워 Ganga Ram Kuwar

31세, 1996년 7월 사망

1991년 한국에 입국하여 의정부에서 일하다 전기 감전으로 사망함

유족 : 아내와 아들 하나, 딸 둘, 동생 하나

●

엄마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우유를 짭니다. 우유를 통에 담아 배달하는 일까지 하고 나아일이 끝납니다. 저는 아침 밥을 해서 동생들에게 먹여 학교에 보냅니다. 가끔 엄마가 가여워 그만 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안계신 탓에 매일 아침 젖을 짜고 팔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신 것은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열살이었고, 제 남동생은 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셔도 우리는 자라 저는 어느덧 스무살 큰 동생은 열네살 막내 녀석은 열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저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할머니 품에 안겼던 네살짜리 동생이 아버지가 타신 택시 창문을 붙잡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울던 일이 생생합니다. 그런 동생을 때놓고 가시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작 제가 어른이 되어 그때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참으로 그림습니다.

아버지는 열여덟살 때부터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버지에게 시멘트 공장 일자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당잡시로 일했는데, 몇 년 성실하게 일하니 정식직원으로 올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나 어린 동생에게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내 힘 닿는 만큼 밀어줄테니 공부하라고 동생은 몰라도 저는 그 말씀까지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외국으로 일하러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도 일본으로 가려고 시골 땅을 많이 팔아 브로카에게 돈을 줬다가 사기만 당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가게 되셨지요. 시골에 남은 땅을 마저 팔아서 말입니다. 한국에 갔다오면 그때 판 땅보다 더 큰 땅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셋이나 되는 자식들 원없이 공부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삼촌은 그 일만 생각하면 울화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 땅만 안 팔았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 말이 나올 때 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육역을 일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이 싫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나갔던 아버지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버지는 이미 감전 사고로 돌아가신 뒤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그 비에 전기가 흘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자주 일하는 공장을 바꿨고, 우리는 몇 번 물어보다가 자주 바뀌니까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무관심했던 일이 모두 후회스러웠습니다. 평소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버지께 여쭙어보고 관심을 좀 더 가졌더라면 아버지의 죽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아버지를 잃고 우리 가족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스러워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자식들 만큼은 원없이 공부 시켜주겠노라 생각하셨을텐데, 어머니는 두려우셨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말입



경가 함 쿠위의 젊은 시절



경가 함 쿠위의 가족

니다.

어떻게 나온 돈인지 몰라도 보상이 조금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 대신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아버지가 없는데 이런 돈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남은 식구들은 먹어야 했고 공부도 해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상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하는 소리가 처음엔 싫었지만, 냉혹한 현실이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상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나눠서 쓰고 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셋 씩이나 있는 우리집에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소를 키우고 우유를 파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저와 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한 막내도 대학에 보내야 할텐데... 내가 살지 모르겠구나, 하는 소리를 가끔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쉽니다.

해가 지날수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꺼칠했던 수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잊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신 차를 붙잡고 데려가라고 울었던 일도 잊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그저 상상속의 아버지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동생들을 보면 한없이 안쓰럽고, 나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추억이라는 것이 때론 사람을 슬프게도 하지만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인데 동생들에게 아버지 대한 슬픈 추억조차도 없습니다. 동생들이 아버지를 너무 잊을까 걱정입니다.



에베레스트

네팔과 한국

한국인들은 네팔을,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한 8천미터급 고봉이 즐비한 히말라야 왕국 정도로만 알고 있다. 네팔과 한국은 1974년 5월 15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네팔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북한과도 같은날 수교를 맺었다. 네팔은 TWO KOREA을 전제로 한 이념적 차원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노선을 걸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실질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교역 현황을 보면 한국은 네팔에 3,045만불을 수출하고 112만불을 수입했다.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의 시차는 3시간 15분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4천여명의 네팔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대략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이주해 온 네팔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편이었으나 끊임없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 한 네팔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함께 모여, 1992년 재한 네팔인공동체(NCC)를 결성하여 자발적인 상부상조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네팔인들 대다수가 미등록 체류 상태였으므로 모임과 활동에 상당한 고통이 따랐으나, 비교적 잘 극복했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네팔에는 일시적 관광객을 제외하면 약 2-3백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매년 많은 한국인이 네팔을 찾고 있으며, 2006년 11월 네팔 카투만두와 인천을 경유하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향후 더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예상되고 있다.



열 번째 이야기

●

로메스 케이시 Rames K.C.

26세, 2001년 6월 사망
2001년 입국하여 의정부에서 노동
일하던 사업장에서 전기감전으로 사망
유족 : 부모님과 누나, 남동생

●

우리 형은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네팔노동자를 다른 나라로 송출하는 일을 하던 형은 주변 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마 형이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나라는 모두 다녀왔을 겁니다. 한국에도 두 번째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다녀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두 번째 한국에 가서는 꽤 오래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국에서 자리잡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형은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더 큰 꿈을 지닌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형의 마지막 여행지가 되었네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이 두 번째 한국으로 간 것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형이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한국을 둘러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여행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뭔가를 예감 하셨던 걸까요? 형이 탄 차 창에 한참 동안 손을 올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려는 형을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형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잠으로 예상하지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형은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먼 한국 땅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저에게 신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형이 권유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벌어 보낼테니 아버지는 그만 쉬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셨는데 조금 있

다 형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겠지요. 형이 죽은 것은 한국에 간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도 그랬지만 부모님은 더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형의 자리를 제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집간 누나가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형이 원망스럽더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대신할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겨두고 떠났으니 말입니다.

형의 주검을 수습하러 아버지와 매형이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을 형을 저는 차마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형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슬슬히 누워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매형은 소식을 듣고 급작스럽게 여권을 만들고 힘겹게 한국비자를 받느라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도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죽어마지못해 간 한국 공항에서 있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간신히 공항을 빠져나가 형이 있는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형은 냉동고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두 분을 맞았겠지요. 아버지나 매형은 그 순간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형이 일하던 공장이 이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째 공장을 운영하며 동시에 이사를 했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후까지 낡은 공장에서 일하고 새 공장으로 옮겨가기 전에 마지막 샤워를 했답니다. 샤워실은 이미 사용을 중단해서 온수가 안 나오니 온수를 양동이에 담아 공장 한 구석에 하수구가 있는 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하수구에 든 물을 빼내기 위해 전기 모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형은 신었던 슬리퍼가 미끌어지면서 그 속으로 발끝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보신 아버지와 매형은 무척



로메스 케이시



로메스 케이지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형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와 매형이 장례를 위해 한국에 갔을 때는 이미 어느 한 인권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인권단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잘 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알려주셨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하자는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무사히 잘 치렀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나 어머니도 그렇구요. 작년에 그분들이 네팔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떠난 아들을 보러가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분들은 이미 네팔을 떠나셨더군요. 따뜻한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상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공무원 생활만 오래도록 하신 아버지와 집안에서 살림만 하신 어머니.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제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집을 지어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주변에 월세가 흔하니 세가 잘 안 나가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할텐데 네팔에는 저 같은 청년들이 할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도 외국



로메스 케이지의 가족

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하고 싶은 욕심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제가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어떻게든 부모님과 먹고 살 궁리

를 해야 하니까요. 취직하려고 면접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일 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면접은 요식행위처럼 하는 거라 매번 사기당하는 느낌입니다. 참 지치는 일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나라에 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형이 무사히 한국에서 돌아왔더라면 지금 나에게 충고도 많이 해 줄 수 있었겠지요. 요즘엔 부쩍 형이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마 형도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런 형을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예전에 형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론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늙으신 부모님 때문에 더욱 그런가 봅니다. 제가 다른 나라로 떠난다면 제 부모님은 형 때문에 애태왔듯 또 그렇게 애를 태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형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놈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송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먼저 사망자의 고국에 연락하여 가족을 찾는다. 때로는 이 일 조차 쉽지 않아 가족이 사망소식을 한참 뒤에나 듣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망소식을 알리고,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여 장례 및 기타 절차를 직접 할 것인지의사를 확인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예를 들면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 때문에 한국에 직접 오지 못하고, 인권단체나 친인척에게 장례 절차를 위임하는 편이다. 전화선을 타고 가족의 오열이 흘러 넘친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장례비를 걱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병원비를 모두 계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뿐더러, 매일 안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되곤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시신을 본국에 송환할 것인가 한국에서 화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망인이, 시신 화장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출신인 경우에는 시신을 송환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이 일반적인 불교나 가톨릭 출신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열한 번째 이야기

찬드라 라이 Chandra Rai

36세, 2005년 8월 사망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줄곧 의정부에서 노동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망
유족 : 부모님과 아내, 어린 아들과 딸

이건 우리 아빠구요, 이건 우리 엄마구요, 이건 제 동생이구요, 이건 나예요.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이에요. 이 그림은 내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지금은 할머니랑 동생이랑 엄마랑 살고 있어요. 위에는 이모가 살아요. 아빠는 왜 같이 안 사냐면요,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대요. 코리아라고 아주 먼 나라래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코리아에 가서 나는 아빠 얼굴이 생각 안나요. 방에 아빠 사진이 있지만 사진에 있는 아빠는 좀 이상해요. 아빠 같은 느낌이 안나요. 친구들 아빠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이상해요.

우리 아빠는요, 키도 크고 힘도 엄청 세대요. 나 같은 여덟 살짜리 꼬마는 10명도 들 수 있을 만큼이요. 아빠가 돌아오시면 엄마 말이 맞는지 아빠 팔에 꼭 매달려 볼 거예요. 왜냐면 가끔 우리 엄마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빠는 곧 돌아오신다, 곧 돌아오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엄마는 나한테는 거짓말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거짓말 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랑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아빠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화했을 때요,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공부하는 걸 싫어했으면 아빠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어린이였을 텐데, 저는 다행히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아빠가 오실 때 선물 많이 사온댔어요. 다시 아빠한테 전화하면 영어노래 테이프를 사다 달라고 말 할 거예요. 내 친구들은 영어노래를 많이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런데 내 동생은 참 말쑥꾸러기예요. 공부도 안하고 매일 엄마, 할머니 옆에 붙어서 페만 써요. 또 내가 공부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옆에 와서 나를 귀찮게 해요. 종이도 막 찢고, 크레파스도 부러뜨려요. 그럴 때마다 아빠 오면 다 말할 거라고 동생한테 겁을 줘요. 그림 말을 잘 듣는 척해요.



인도라 라이의 아내와 어머니

동생은 한번도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나는 어릴 적 아빠랑 찍은 사진도 있고 아빠랑 전화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동생은 그런 사진도 없고 아빠랑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빠가 한국 가실 때 동생은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보지 못했대요. 엄마가 아빠한테 동생 사진을 보냈어요. 아빠가 전화했을 때 우리 동생은 말도 못하는 아기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귀에 대주면 막 빨아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동생이 말을 잘 하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해요.

엄마는 아빠가 바빠서 그러신다, 전화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는 꼭 저에게 전화하실 거예요. 옛날에 아빠한테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 봤어요. 우리가 살 집을 그리려고 했는데 아빠는 어떤 집이 좋은지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는 1층에 꽃밭이 많은 집이 좋고, 엄마는 3층짜리 예쁜 집이 좋다고 했고, 장난꾸러기 동생은 다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빠가 좋아하는 집이면 다 좋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빠도 꽃밭이 많은 집을 좋아할 것 같아서 내 맘대로 그렸어요. 내 그림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만 하는 나쁜 엄마가 되었는데, 오늘도 엄마는 맨 날 거짓말만 한다고 따지고 드는 딸아이에게 아무런 대답도 못 했답니다. 마냥 아기코만 생각했던 딸아가 엄마에게 귀여운 잔소리를 늘어놓는 나이가 되었습니 다. 아이들 아빠는 울 더사인(추석)에는 꼭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화에 매달리는 딸도 보고 싶고 태중에 있을 때 떠나 여태 얼굴도 못 본 아들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일 년만 더 일하고 오겠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드라 라이의 딸과 그림



남편은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카투만두로 왔습니
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시골에서는 아이
들 교육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지만 남편을 따라 카투
만두로 와서 어렵사리 집을 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도시로 올라온 것을 후회한 적도 많았습
니다. 그러다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웃돈이
라고는 한 푼도 없는 우리는 한국에 가는데 필요한 돈을 대느라 친척들가다 찾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돈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당하기 이틀 전에 전화를 했어요. 두달 치 월급을 송금했으니 가서 받으라고요. 돈 모아서 집을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딸애가 아빠가 하던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림을 그리면 맨 날 예쁜 집에
우리 식구가 사는 그림만 그리고.. 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남편은 일을 마친 주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 도로 공사를 하던 길이었다는데. 아마 막힌 길인지 모르고 밤길을 달리다가 맞은편 벽
에 부딪혔나 봐요. 앞에 탄 사람도 그때 죽었다는데, 그분 가족도 우리처럼 힘들겠죠? 그 집도 하루아침에 가
장을 잃었을테니... 저는 억척스럽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먹지만 자꾸 세상에 있지도 않은 남편을



찬드라 라이의 가족, 단란한 한 때

생각해요. 어머니는 이제 됐다고 다시 시골에 내려
가서 살자 하세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이 험한 카투만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어머님 말씀을 따를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
지만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제 자신과 한약
속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저축한 돈도 떨어져 가고 아직 3년은 더 제가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직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도로공사 회사에서 보상금을 조금 줬는데 회사 사장님이 횡령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
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하다는 서류를 만들어 보냈는데 여러 번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했어요. 문제가 잘 해결돼서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기술
이라도 배워서 조그만 가게를 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어려울 텐데... 아이
들도 이해하겠지요. 애들도 클테니까요.



찬드라 라이의 어머니

찬드라 라이, 그 뒷 이야기

찬드라 라이는 200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현장은 새로운 도로를 만들던 건설현장이었다. 출입이 통제되어야할 도로였지만 출입금지 표시나 다른 안전물이 전혀 없었다. 이 건설현장의 소장은 이후 안전시설물 미비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 건설회사는 사망한 찬드라 라이와 수바스 구릉에게 위로금 조로 각기 5백만원씩 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돈은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당시 찬드라 라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은 건설회사에 연락해 자신이 돈을 받아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챘다.

이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2006년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나 6개월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여태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자신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을 냈으므로 사망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열 두 번째 이야기

●

비렌드라 비크람 사아 Birendra Bikram Shah, 애칭 '라자'

37세, 2003년 2월 12일 사망

2001년 연수생으로 한국입국, 대구에서 1년 8개월 노동

유가족 :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기숙사에서 시신으로 발견,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전사장이 네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이들어 부리나케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네팔 사람을 한국에 보내는 노동력 송출회사 사장입니다. 회사에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물려둔 네팔 사람들이 장사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전사장을 만나야 한다고 꼭 만나야 한다고 몸부림 쳤습니다. 제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악다구니가 나왔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택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날처럼 집에 가는 길에 시택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어른들께 제가 무엇을 여쭙어도 대답도 잘 안하시고 뭔가 침통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서 일하는 아이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어서 말하라고 다 그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택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라자는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리둥절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했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세상에 없다니요. 저는 장난이야, 거짓말이야, 아닐까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이 아득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가난해서 한국에 일하러 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할아버님 밑에서 온 형제가 함께 모여 살다가 우리 식구만 살림을 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옷가게를 하다 하도 장사가 안돼 문닫고 나서 한국으로 가려고 결심했던 겁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어른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벌여 보낼테니 애들 공부시키고 저축해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

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애들한테도 얼마나 금찍하게 잘 했는데요. 우리 딸은 아빠 전화만 받으면 울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전화기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마



비렌드라 비끄럼 사이의 아내

다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찌나 괴요. 어찌자고 자주 애하고 울고 앉았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후회됩니다. 그러지 말걸, 어린 딸에게라도 하소연하며 실컷 울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걸 그랬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제게는 맘 약한 소리를 못하고 애한테만 그랬나 봐요. 제 아버지 목소리 들을 때 마다 울던 딸은 이제는 눈물이 말랐나 봐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뉘나간 애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 봐요. 지금은 아버지께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제 가슴에서 아버지를 지우려는 거 같아요.

제 동생이 한국에 먼저 갔어요. 동생은 한국에 두 번 갔는데, 한번 연수생으로 갔다와서 다시 한번 신청해서 또 갔어요. 두 번 째 갔을 때, 매형도 네팔에서 힘들면 한국에 오라고 수속도 대신 해 주고 비용도 대 주면서 매형을 데려 갔어요. 지금은 매형을 자기가 한국으로 불러내서 돌아가시게 했다고 죄스러워 해요. 두 번 째 연수를 중단하고 매형 유골을 제 손으로 들고 와서는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가기 싫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 일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대네 하는 소문으로 마을이 시끄러운 적도 있구요.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



비렌드라 비고림 사이의 아내

습니다. 설마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차라리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잠이 들면, 아

침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전히 숨도 쉬고 있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고... 어차리 죽을 수 없다만... 애들하고 살아야 한다만... 그제 열심히 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남편처럼 심장마비로 죽었다던 사람들도 다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사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유가 뭐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무척 힘들게 전사장을 만났습니다. 문밖에서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머먼 누님 아니세요? 여기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더니 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었어요. 제 동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사장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니 보상금을 많이 받기는 힘들거고, 관리회사에서 얼마간 돈을 받을 수 있을테니 서류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해서 보내고 한국에 연락해 보니 서류 잘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참 지나도 아무소식이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사장이 또 네팔에 왔다는 소식이 있길래 또 쫓아 갔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전사장은 조금 있으면 12만루피(약 1800만원)를 받게 될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아들을 도와주겠다고도 말했어요. 제게는 그 돈을 받으면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아껴써서 집단장에 쫓겨 하고 살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같은 놈이 2년이 넘도록 돈을 안 보내주더군요. 꼭 자기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것 처럼 아들이 어쨌네, 집을 잘 꾸며야 되네 하는 소리를 왜 하느냐구요. 그 뒤로는 소식이 끊기고 전사장과 연락도 안 됩니다. 한참 뒤에 어느 날이던가, 한국 인권단체에 계신다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께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에 그분이 일하는 단체에서 보낸 서류를 몇 장 받기는 했는데 온통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지금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받을 수 있다고, 정확한 금액까지 말해주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고 있으니 당장 학비는 그렇다 쳐도, 제가 끝까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을지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 네팔에서 마흔이넘은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자고 들어도 당장 돈 한푼이 없는데요...

2006년 11월 비렌드라 비고림 사이의 유가족은 위에 언급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네 팔 출신 이주노동자

- ▶ 얌 프라사드 셰르뿌자 Yam Prasad Sherpunja
1990년 11월 의정부에서 사망
- ▶ 어딕 라이 Adip Rai
1992년 12월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36세
- ▶ 찬드라 싱 구롱 Chandra Shing Gurung
1993년 3월 27일 인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52세
- ▶ 버비정 구롱 Bhavijang Gurung
1993년 7월 4일 대구에서 전기감전으로 사망, 당시나이 24세
- ▶ 체트라 구롱 Chetra Gurung
1992년 11월 2일, 당시나이 28세
- ▶ 렉슈미 칸타 수베티 Laxmi Kanta Subedi
1993년 서울에서 지하철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30세
- ▶ 버뜨리 라이 Badri Rai
1993년 7월 경기도 포천에서 위장병으로 사망, 당시나이 27세
- ▶ 수닐 머허르전 Sunil Maharjani
1994년 6월 1일 안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23세

- ▶ 마딕 쿠위 Madhav Kuwar
1994년(추정)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23세(사망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과 연락이 닿음)
- ▶ 발 크리슈나 기미레 Bal Krishna Ghimire
1994년 경기도 포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27세
- ▶ 허리 프라사드 어리알 Hari Prasad Aryal
1994년 7월 2일 경기도 포천에서 뇌종양으로 사망, 당시나이 24세
- ▶ 산띠 다망 Shanta Tamang
1994년 10월 18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기감전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27세
- ▶ 버허랏 만 번다리 Bharat Man Bhandari
1994년 11월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24세
- ▶ 뿌루나 체트리 Puruna Chetri
1995년 이전(추정), 당시나이 20세
- ▶ 따라 구롱 Tara Gurung
1995년 1월 29일 의정부에서 뇌종양으로 사망, 당시나이 27세

- ▶ 바슈누 바하돌 라마 Bisnu Bahadur Lama
1995년 7월 29일 경기도 안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21세
- ▶ 나란 바하돌 타파 Narayan Bahadur Thapa
1995년 8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강물에 빠져 사망, 당시 나이 25세
- ▶ 어닐 다칼 Anil Dhakal
1995년 10월 3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칼에 찔려 사망, 당시 나이 24세
- ▶ 너렌 따망 Naren Tamang
1995년 11월 1일, 서울에서 자살, 당시나이 23세
- ▶ 딜립 수바 Dilip Subba
1996년 대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당시나이 50세
- ▶ 떠젠드라 커드카 Tejendar Khadka
1996년 김포에서 살해당함
- ▶ 씨로스 야미 Saroj Yami
1996년 사망, 원인모름

- ▶ 우머루 바하두르 구롱 Umar Bahadur Gurung
1996년 2월 10일 수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 나이 38세
- ▶ 허리 바하두르 빠이자 Hari Bahadur Paija
1996년 3월 14일 경기도 구리에서 심장병으로 사망, 당시나이 41세
- ▶ 비슈누 바하두르 타파 Bisnu Bahadur Thapa
1996년 4월 7일 안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 나이 21세
- ▶ 수바스 디와리 Subash Tiwari
1996년 6월 17일 수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
- ▶ 브람바르 비수카르마 Prem Bd Bissokarma
1996년 6월 20일 인천에서 심장병으로 사망, 당시나이 28세
- ▶ 러빈 구롱 Rabin Gurung
1996년 7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강물에 빠져 사망 (시신 찾지 못함), 당시 나이 31세
- ▶ 정가 램 쿠위 Ganga Ram Kuwar
1996년 7월 26일 의정부에서 전기감전으로 사망, 당시 나이 31세

한국에서 사망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기록에는 이미 많은 넋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네팔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여러 자료를 살펴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조차 담기지 못한 넋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깊이 고개숙여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아는 분이 있다면 부디 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십시오.

- ▶ 비슈누 벅파 수바 Bisnu Bhakta Subba
1996년 8월 24일 경기도 포천에서 황달증세를 보이며 사망,
당시 나이 30세
- ▶ 칸 싱 기리 Rabin Shing Giri
1997년 2월 12일 경기도 포천에서 기계폭발로 사망,
당시나이 31세
- ▶ 쿨 바하두르 사루 Kul Bahadur Saru
1997년 4월 4일 대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23세
- ▶ 우땀 바하두르 기리 Utam Bahadur Giri
1997년 4월 27일 인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 ▶ 딜 프라사드 페가미 Dil Prasad Phagami
1997년 5월 13일 수원에서 전기감전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27세
- ▶ 람 프라사드 네오빠니 Ram Prasad Newpani
1997년 6월 14일 의정부에서 사망, 원인 모름, 당시나이 26세
- ▶ 리파르 다와 라마 Ritar Dhawa Lama
1997년 10월 31일세 서울에서 뇌종양으로 사망, 당시나이 32세
- ▶ 꺾밀 기미레 Kamal Gimire
1997년 12월 23일 의정부에서 근무중 사망, 원인 모름,
당시나이 31세
- ▶ 캡텐 뽀 Capten Pun
1998년 인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 나이 29세

- ▶ 거건 바하두르 뽀 Gagan Bahadur Pun
2000년 이전(추정) 지병으로 사망
- ▶ 람 크리스너 뽀 Ram Krishna Pun
2001년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45세
- ▶ 러젠드라 쉐르마 Lokendra Sherma
2001년 2월 9일 김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원인 모름,
당시나이 36세
- ▶ 로메스 케이시 Ramesh K.C.
2001년 6월 10일 의정부에서 전기감전사고로 사망
- ▶ 라젠드라 켄룽 Rajendra Kerung
2001년 9월 4일 수원, 야간근무 중 사망한 채로 발견,
원인 모름
- ▶ 기스너 바하두르 타파 Krishna Bahadur Thapa
2001년 사망(추정)
- ▶ 산토스 샤히 Shantosh Shai
2002년 2월 12일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33세
- ▶ 고버르던 차우더리 Goverdan Chaudhari
2002년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33세
- ▶ 락틸 찬탈 Tilak Chantal
2002년(추정) 의정부에서 음독 사망

- ▶ 남까 라마 Namka Lama
2002년 12월 30일, 의정부 거리에서 동사한 채 발견,
당시나이 43세
- ▶ 옴 바하두르 라나 Om Bahadur Rana
2003년 1월 12일 파주시 금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 ▶ 삐수삐띠 뽀대 Pasupati Panday
2003년 의정부역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진료 중 사망
- ▶ 수러쨌 라이 Suroj Rai
2003년 근무 중 사망, 당시 나이 31세
- ▶ 비렌드라 비크람 샤아 Binendra Bikram Shaha
2003년 2월 12일 대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나이 37세
- ▶ 옴 구룽 Om Gurung
2004년 인천에서 자살
- ▶ 러빈드라 라치 번다리 Rabindra Raj Bhandari
2004년 7월 5일 구리시에서 지병으로 사망, 당시 나이 52세
- ▶ 람지 찌우더리 Ramji Chaudari
2004년 10월 10일 의정부에서 근무 직후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 당시 나이 45세
- ▶ 베그 바하두르 라나 Beg Bahadur Rana
2005년 6월 14일 경기도 군포에서 전기감전으로 사망,
당시나이 38세

- ▶ 산토스 슈만 다칼 Santos Suman Dhakal
2005년 7월 2일 경남 창원 기숙사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
당시나이 37세
 - ▶ 찬드라 라이 Chandra Rai
2005년 8월 7일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36세
사망직전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사망 보상금 횡령
 - ▶ 수바스 구룽 Subash Gurung
2005년 8월 7일 의정부,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나이 28세
 - ▶ 고빈더 바하두르 체트리 Gobindra Bahadur Chetri
2005년 11월 10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학약품을 마시고 사망,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은 인정하지 않음,
당시나이 36세
 - ▶ 옴까르 커르카 Omkar Khadka
2005년 12월 인천에서 지병으로 사망
 - ▶ 샴세르 바하두르 타칼리 Shamser Bahadur Thakali
2006년 1월 2일 서울 성수동에서 지병으로 사망,
사망 후 일주일만에 발견, 당시나이 45세
 - ▶ 데비 랄 파우델 Devi Lal Paudel
2006년 10월 1일 경기도 포천에서 칼에 찔려 사망,
당시나이 33세
- 그리고 이 기록에조차 담기지 못한 녀들……



책 을 만 들 고 나 서

마무리하는 지금살펴보니, 처음이 책을 만들기로 했던의도가 무엇이었던 누구도 끝까지 읽기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유티와 재미도 없고 새로운 지식도 없습니다. 또한 그 흔한 희망 한자라도 없습니다. 오로지대한민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사망한 이름없는 이들의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책을 만드는 내내 아주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네팍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탄채 들어받았다는, 어두운 도로 끝에 놓여있던 무지한H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누워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막는 이도 없었고 그 내용을 알리는 어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을 달리던 청년은 어둠아타 몰랐습니다. 그 길이 생과 사를 가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주노동자의 삶이 바로 청년이갔던 그 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이정표도 없이 길을 가는, 때로는 무한질주하는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의 삶입니다. 여름 날 폭우처럼 쏟아지는 달콤한꿈과 악몽을헤치고 가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삶입니다.

여기 소개한 글은 일일이 가족을 만나이야기를 듣고그이야기를 가족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글을 정리하면서 그 절절한 아픔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픔이 진해도 남은 이들은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작은 관심과 기록이 그 삶을 사는 이들에게 초라하지만 든든한 노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행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후원 아름다운재단 · 해피빈

기획 이완

취재 구본희

자료협조 재한네पाल인공동체(NCC)

통역 시디버랄, 어르준파우델, 아식시레스타 (아시아인권문화개발포럼)

영상편집 장효정

디자인 이민자

발행일 2006년 12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9-1 3층 304호 (420-808)

전화 032-684-0244

팩스 032-684-0248

이메일 asiansori@empal.com

블로그 <http://happylog.naver.com/asiansori.do>

후원계좌 314801-04-017645 국민은행 아시아인권문화연대